

國際高麗学会

會報

Vol. 2

1992.7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IS)

第2号

國際高麗学会本部事務局

목 차

■ 특집 : 한반도 문제의 재검토.....	1
○ 총괄보고.....文正仁	4
○ REVIEW OF CONFERENCE ON 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	白原光 9
○ 학술회의와 미국여정의 단상.....梁官洙	11
■ 부회별구상	
1. 역사부회.....	14
2. 철학·종교부회.....	16
■ 연구활동	
1. 아시아 제 2 분회	17
(1) 東日本 인문사회과학 연구회.....	17
(2) 西日本 지역 연구회.....	18
2. 문학부회 연구회	20
3. 과학기술부회 연구회	21
■ 회원동정	
회원의 연구활동(저서, 논문, 학회활동)	
1. 大村益夫.....	23
2. 滝沢秀樹.....	24
3. Hawaii 大学の 한국학회 참가.....	24
4. 미주지역의 회원	24
■ 사무국 활동일지	25
■ 알림	
1. 제 4 차 조선학 국제 학술 토론회	27
2. 제 2 차 ISKS총회	27
3. 제 2, 3 차 운영 위원회의	27
4.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문제」국제 학술회의(예정)	28

<특집>

한반도 문제의 재검토

—군비통제, 핵문제, 경제개혁—

주 최 : 국제고려학회 정치법률 부회
Georgetown 대학 School of Foreign Service
후 원 : 大阪情報·컴퓨터 전문학교(OIC)
Coordinators : 길영환(Iowa주립대 교수 본 학회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문정인(Kentucky 대학교수 국제고려학회 미주지역본부 정치
법률부회 위원장)
David I, Steinberg(Georgetown 대학교수)
일 시 : 1992년 5월 25일~28일
장 소 : Washington D·C의 Georgetown 대학 Leavey Conference
Center.

<일 정>

— 5월25일(월)

Hotel check in, Leavey Center Georgetown 대학
6 : 00~ 8 : 00, reception, Georgetown 대학

— 5월26일(화)

9 : 00~ 9 : 30 등록

9 : 30~10 : 00 개회식(환영사, 개회사)

사회 : 문청인 교수

- Hans Binnendijk, direct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Diplomacy
- 오청달, ISKS 부회장
- 김준호, OIC 이사장
- 길영환, ISKS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 David I, steinberg. Georgetown대 교수

◎PANEL 1. (10:00~12:30)

<조선반도의 재검토-변화와 연속>

의장 : Hans Binnendijk, Georgetown 대학

(1) 변화하는 국내구조와 남북간 관계 : 한국의 시각과 전망

이만우, 경남대학 극동문제 연구소 소장

(2) 냉전후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한반도 : 변화와 연속

Darly Plunk, Heritage 재단, Richard Allen Associates

(3)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반도 : 길영환(Iowa 주립대 교수)

○토론자

Selig Harrison (Carnegie 재단)

Donald Mac donald (George town 대학)

<12:20~2:00 중식 Leavey Center>

연설 : Edward C, Myer (전 미국 육군 참모총장)

◎PANEL 2. (2:00~5:00)

<구노리와 새로운 현실 : 신뢰구축과 한반도의 군비통제>

의장 : Stephan Gilbert, Georgetown 대학

(1)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 한국의 시각

박동환 교수, North western 대학

(2) 군비통제와 남북관계 - 미국인의 시각

Burras Carnahan, SAIC

(3) 지역단위에서의 군비통제

문정인 교수, Kentucky대학

○토론자

Alan Romberg(미국 국제 관계 협회)

Ronald Mclaurim(Abbott협회)

- 5월27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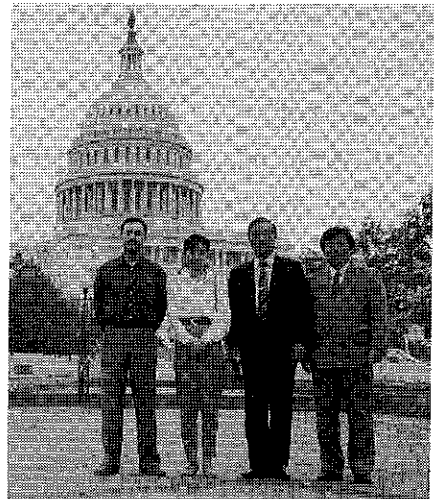
◎PANEL 3. (9:30~12:00)

<핵문제와 한반도>

의장 : Roy KIM, Drexel 대학 교수, ISKS 미주지역 사무국장

(1) 한국과 핵문제

윤정석(중앙대 교수)



Washington D.C의 White House의 앞에서
좌로부터 김준효, 홍효자, 오청달, 양관수

(2) 미국과 핵문제

Leonard Spector, Carnegie 재단

(3) Gulf전의 시각에서 본 핵문제

William M, Arkin, Greenpeace International

(4) 한국의 시각

안호영(주미 한국 대사관)

○토론자

Ralph Clough, SAIS (Washington 소재)

B.C. Koh, Illinois 주립대 교수

◎PANEL 4. (1:30~3:00)

<북조선과 경제개혁>

의장 : David I, Steinberg, Georgetown 대학교수

(1) 남북간의 간격을 메우는 것과 한국의 노력을 위한 전망

Robert Warne, Korea Economic Institute

(2) 사회주의 경제, 북조선과 국제은행의 공동참여

이덕수, 세계은행

(3) 미국과 북조선경제

John Merrill, 국무성

○토론자

Donald Henry, Rand Corporation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 대학

伊豆米 元, Harvard 대 객원 연구원

3:30~4:00 Coffee Break

◎총괄 (4:00~5:30)

의장 : 길영환, Iowa주립 대학(ISKS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David I, Steinberg, Georgetown 대학, 문정인 Kentucky 대학

참가자전원, panelists, guests

Georgetown 대학은 1789년 설립되어 200년이 넘는 역사가 말해 주듯이 미국의 우수한 명문대학 중의 하나이다. 이번 본 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반도의 당면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앞으로, 미국내에서 코리아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국내의 각 분야전문가(미국인 학자, 재미동포 학자, 미국무성 고위관료)와 한국의 학자, 일본에서는 오칭달교수(본학회 부회장), 양관수(본부 사무국 차장), 김준호(OIC 이사장), 홍효자(통역)가 참가했으며, 참가자는 발표자 토론자 모두 포함

해서 47명이었다.

네 개의 Panel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테마 자체가 현재 한반도의 남북과 주변 국가들과의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내용이어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이와 같은 Conference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모두 희망할 정도로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의 내용, 과정, 성과에 대해서 흡족함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는 주최측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점도 있지만, OIC 이사장 김준효(본학회 찬조회원)씨의 전면적이고, 열성적인 지원 덕택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밝혀 두고 싶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코멘트,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금년중으로 영어판을 간행할 것이며, 코리아어판도 내년중으로 낼 예정이다.

● 총괄보고

文 正 仁(미국 Kentucky 대학 교수)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군축, 핵문제, 경제개혁(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Arms Control, Nuclear Issues, Economic Reformation)”라는 주제하에 총 4개 분과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 미 육군 참모총장 「마이어」대장을 비롯한 미국의 학계, 관계, 정계 대표들이 참석했고, 국제 고려학회를 대표하여 오청달 부회장과 양관수 사무차장, 그리고 국제 고려학회 미주분회를 대표하여 김용택 사무국장이 각각 참가했다.

본 학술회의의 근본 취지는 미국과 남·북한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 간에 대화와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비공식 학술 연계망을 구축코자 함에 있었다. 이와 관련 회의 주최측은 북조선 학자들을 초청했으나, 일정상 문제 때문에 북조선 학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북측 학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번회의는 진지하고 격조높은 학술 토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영문 및 국문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인데, 그 편집은 이번 회의 조직 책임을 맡았던 길영환(아이오와 주립대 교수), David I, Steinberg(조지타운대 교수), 그리고 문정인(켄터키 대학 교수)이 추진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국제 고려학회 정치·법률분회와 조지타운 대학은 앞으로 이같은 비공개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분과(좌장 : Hans Binnendijk 교수, Georgetown 대학)

“한반도를 다시 생각한다—변화와 지속”이라는 주제하에 제 1분과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만우 교수가 “남한 내부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Heritage 재단의 Daryl Plunk 연구원이 “탈냉전 질서하의 미국과 한반도—변화와 지속”, 그리고 아이오아 주립대의 길영환 교수가 “신 국제 질서와 한반도”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만우 교수는 남한 내부의 민주화 과정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며, 남·북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Plunk 연구원은 탈냉전이란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조·미관계 개선을 즉각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현안문제인 핵사찰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및 정치적 자유화 등의 사안들에 대해 북조선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조·미 정상화의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이와 맥을 달리하여,

길영환교수는 탈냉전이란 세계체제 차원의 변화가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고 남·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1분과의 토론에 나선 「카네기 연구소」의 Selig Harrison 선임 연구원과 「조지타운」대학의 Donald McDonald 교수는 주제 발표자들의 보수적 시각에 반론을 펴면서 조·미 수교의 조속한 타결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인권문제 등 잡다한 조·미 정상화에 대한 조건부 제시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가능한 북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해하지 않고 경제적 재건을 촉진시킨다는 큰 범주안에서 대북조선 외교정책이 방향을 잡아야 하고 북조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 오찬연설(Edward C. Myer 전 미 육군 참모총장)

오찬 연설에 나선 Myer대장은 자신이 지난달 4월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북조선의 군사력이 막강하지도 않고 또한 한국에 대한 군사침략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부쉬」와 「노태우」대통령이 남한내의 미국 전술 핵을 철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의회 청문회에서 미 고위장성이 한국내 전술 핵 유무 문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neither confirm nor deny)」않는 종래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북조선의 신뢰감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장군은 북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해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해 주면서 상호 신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 「연방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3) 제 2 분과(좌장 : Stephen Gibert 교수, George town 대학)

“남은 수사학과 새로운 현실 : 한반도의 신뢰감과 군비통제”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제 2 분과에서는 Northwestern 대학의 박동환 교수가 “남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SAIC 선임 연구원인 Burrus Carnahan 이 “남북한 군비 통제에 대한 미국측 시각” 그리고 Kentucky 대학의 문정인 교수가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과 한계”라는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박동환 교수는 흡수형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직 기능적 접근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여 남한의 대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방안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남한은 대북 군비통제협상에 있어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한 미 관계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신뢰구축의 방편으로서 남·북 경제교류가 북측의 정권 및 사회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Carnahan 연구원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미국의 입장을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 사례를 비추어 재조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처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교수는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보다 본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안정한 국내 정치구조, 군사력 불균형, 인식 구조상의 파행성, 동북아전략구조의 특이성, 그리고 군축에 대한 인식론적 상이성등 신뢰구축에 대한 본질적 장애요인들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 미국무성 대변인 Alan Romberg와 Abbott연구소 소장인 Ronald Mclaurin 박사는 공통적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중요한 것은 원칙의 설정과 그에 대한 합의 보다, 그 합의의 현실적 실행에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북조선측으로 하여금 합의의 실행을 이행토록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제 3 분과(좌장 : 김응택 교수, Drexel 대학, ISKS 미주 사무국장)

제 3 분과는 “핵문제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중앙대 윤정석 교수는 “남북한 통일 전망”이란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현안문제와 통일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했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인 안호영서기관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한국측 시각”이란 발표를 통해 북측의 핵사찰 수용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신뢰구축 등에 기본 전제라고 표명했다. “미국과 한반도 핵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Carnegie연구소의 Leonard Spector 연구원 역시 조·미관계개선의 기본전제는 국제핵 사찰 수용이라 밝히며, 지난 4월 합의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Greenpeace의 군사연구실장으로 있는 William M.Arkin은 「Gulf전을 통해 본 한반도 핵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라크와 비교해 볼 때 북조선의 핵수준은 훨씬 미진, 취약하며

즉각적인 핵위협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존스 홉킨스」대학의 Ralph Clough(클러프)교수와 일리노이 대학의 고병철 교수는 발표자들의 논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핵문제를, 비밀로한 과도한 대북 견제 및 협공은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Clough)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기술적, 재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5) 제 4 분과(좌장 : David I. Steinberg 교수, Georgetown 대학)

“북조선과 경제개혁”이란 주제하에 진행된 제 4 분과에서 워싱턴소재 한국경제연구소 Robert Warne 소장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북조선의 “주체”전략은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고, 현재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한 서방측의 자본, 기술,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성의 John Merrill 박사는 「미국과 북조선 경제」란 논문 발표에서 북조선의 경제적 침체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개방과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통제된 상황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은행의 이덕수 박사는 “사회주의 경제, 북조선, 그리고 국제금융”이란 주제발표에서 북조선 경제가 그리 취약하지 않고 부분적 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회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조선의 경우, 외채 규모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과 개방을 통해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조선의 세계 은행 및 IMF가입에 대한 절차상의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토론에 나선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의 양관수 선생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1991년 12월 <남북의 화해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가 남북의 정부대표가 서명하여 체결된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추진중에 있으며,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도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추세 속에서 기대되고 있다. 같은 민족 사이에 상호 경제구조의 보완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정세에서 보면,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남북간의 교류·협력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최근 방침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계시키는 linkage 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 선전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진전을 경계하는 측면이 아직 강한 것 같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 통일전략으로써 <교류 우선론>을 기조로 하여,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북간의 최대 쟁점 문제로 등장되면서, 핵 상호

사찰과 경제교류·협력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아직도 한국에는 반공과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파 세력이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쏘 언방」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강경파 세력의 북한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남한체제 우월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사회주의의 자멸론=자연사론>이 최근 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은 저지되고 있다.

Robert Warne 씨와 World Bank의 이덕수 선생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을 위해서 일본 자본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자본의 대북한 자세를 살펴보면, 북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 있는 자본가중에서 대북한 투자의 의욕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통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한다고 해도, 자본규모는 소액이며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최고 실권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가 중국 경제특구를 직접 시찰한 후, 북한식 경제개혁·개방의 실험지로서, <두만강 하류개발=나진·청진·선봉 경제특구>개발을 결정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의 방법을 모델로 하여 신중하게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법을 1980년대 초부터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경제 특구가 중국전체에 사회경제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 국토가 좁기 때문에 변경지역인 두만강 하류에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설정, 가동하면 그 영향이 북한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북한의 집권층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이다. 두만강 하류의 경제특구가 북한의 현정권의 유지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북한은 제 2, 제 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만강 하류지역에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북한경제의 회생, 남북통일여건의 조성, 동북 아시아의 평화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북한 투자의 전망은 밝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IMF,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静岡県立大学 伊豆米 교수는 일본의 대 북조선 지원은 핵문제 등 현안문제

의 조속한 타결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다.

- ①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의 오칭달 교수는 북조선이나 미국학자들의 대북조선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왜곡된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분야의 경험적 사례들을 열거하며 기존발표자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
- ② 존스홉킨즈 대학의 Ralph Clough 교수는 이번 회의와 같은 비공식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함. 조지타운대의 McDonald 교수도 이에 동조함
- ③ 伊豆米 元 교수는 일본 외무성에 한반도 관계 연구기금이 곧 조성되는 데 이 기금을 부분적으로 이용, 이같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④ 참석자 전원이 이번회의가 한반도관계 회의중 질적인 면에서 탁월했고, 이 회의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REVIEW OF CONFERENCE ON 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

by Won Kwang Paik

I have recently attended the conference, "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 : Arms Control, Nuclear Issues, Economic Reformation" organized by Georgetown University and the Committee on Politics and Law,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he conference, was organized into four panels with distinguished participants from academic, governmental, and policy study backgrounds. Overall, the conference was very well received and it scored many positive exchanges and quality discussions on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Certainly, the conference has inspired a number of fresh and insightful ideas, remarks, and impressions that would have a profound impacts on future exchanges and discussions about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unification.

The major topic of the conference included political, military, nuclear, and economic issues and concerns of the Korean Peninsula. General Edward C. Myer, a former Army Chief of Staff, pointed out in his luncheon address that there are six dimensional concerns for Korean Unification. First, there is a lack of trust (i.e., mutual dis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ond, changing global conditions circumstances, such as demi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have prompted an additional uncertainty. Third, nuclear questions in the Korea Peninsula, especially a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needs to

be settled. Fourth, domestic military configurations and capabilities need to be re-examined. Fifth, socio-political developments in Juche-dominated North Korea and democratic South Korea. And Finally, a lack of economic understandings and interac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his concluding remarks, General Myer affirmed that demilit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lmost inevitable, since the ultimate winner in any future military confront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neither North nor South Korea, but the neighboring Japan. Along the similar vein, Professor Chung-In Moon (University of Kentucky) suggested that any future dialogues on the Korean Unification requires a third party facilitator in order to de-politicize the issues and to insulate inter-Korea negotiations from regional and global concerns.

Regarding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Dr. Duck-Soo Lee (the World Bank) told us that North Korea is in bad economic shape. This is evidenced by economic stagnation, food shortage, and severe reduction in economic aid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 simple fact for North Korea is, import cannot be cut and production cannot be increased dramatically. Dr. Lee advised that North Korea can overcome this economic hardship by reorient resource allocation to improve economic infrastructures ; increase trade with South Korea ;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make foreign investment more attractive; and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such as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Dr. Lee stress that North Korea is very uninformed about IOs, and it's about time that North Korea should actively sought the memberships. As an official delegate of ISKS, Dr. Chung-Dal Oh (Vice-President of ISKS) shared the following observations about North Korean economic problems. First, there has been four straight years of agricultural failures. Second, out-dated industrial equipments are attributing to decreased productions. Third, worker's morale and work ethics have eroded substantially from the previous years. And fourth, bureaucratic rivalries and compartmentalization have caused bureaucratic/leadership confusions and uncertainties.

Although I cannot cover all facets of the conference in this brief review, it is clear that panel presentations were superb, and discussions following the presentations were delightful, engaging, and thought-provoking. It is certainly regrettable that delegates from North Korea were un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to experiences the quality and indeed meaningful interactions, but the conference has delighted its audiences in spite of their absences. In closing, the success of the conference is assured by its competent organizers (Dr. Young Whan Kihl of Iowa State University, Dr. Chung-In Moon of University of Kentucky, and Dr. David I. Steinberg of Georgetown University) and by the financial support of Mr. Jun-Hyo Kim, President of OIC.

● 「한반도문제 재검토」학술회의와 미국여정의 단상

梁 官 洙(ISKS 본부사무차장)

이번 회의에 일본에서 참가한 사람은 모두 네명이었다. 5월21일 大阪을 출발하여 New York에서 3박, Philadelphia에서 1박, Washington D·C에서 4박5일(5월25일~29일), Los Angeles에서 2박하고 6월1일(일본시간)大阪에 돌아왔다.

출발하는 날 大阪공항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과 미국사이에 날짜변경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5월31일 돌아올 예정이었던 것이 6월1일로 된 것이다. 여행을 자주 해 보아도 이런 기본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재삼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大阪→New York 직행하는 비행기편이어서 New York에는 5월21일(미국날자)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데 5월22일 도착하는 것으로 백원광씨에게 연락해 놓았으니 공항에 마중 나오는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5월21일, New York에 도착하니 저녁시간이었다. 가는 곳마다 고려학회 회원들과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New York에서는 국제고려학회 미주지역 본부 회장인 현봉학 박사를 비롯해서 김문옥 교수, 윤여민 교수, 이제향 작가, Roy 송 교수, 장지윤씨등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牛村>이라는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본학회의 제반활동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다. 미주지역 회원들의 의견 중에는 내년 93년에 미국에서 Korea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자는 열성이 대단했다. ISKS미주본부 주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청달 부회장도 기본적으로 찬성했지만,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수고 해주신 분은 백원광씨이다. Chicago의 북쪽에 있는 Central Michigan 대학에서 New York까지 15시간이나 차를 몰고 와서 우리 일행의 안내, 통역 등 고생스러운 잡일을 모두 도맡아서 처리해 주었다. New York에서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Cruise line이라는 관광유람선을 타고 맨하탄 섬을 세시간 동안 일주하면서, <자유의 여신상>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구경할 수 있었다.

밤에는 Empire State 빌딩에도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New York의 야경을 흠뻑 즐겼다. New York의 야경은 세계 최대도시답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매력을 느끼게 했다.

New York에서 Philadelphia까지는 Amtrack 이라는 기차를 타고 갔다. 비행기

만 타고 여행하다 보면 도시만 보게되는 단조로움 뿐이지만, 기차여행은 차창으로 보이는 자연과 시골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1 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Philadelphia역에 도착해 보니 김응택 교수님이 마중 나와 있었다.

Philadelphia역은 역 건물의 기둥이 그리이스의 신전과 같이 목직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건물의 천장이 굉장히 높았다. 1930년 전후 미국의 대공황 때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Four Season's Hotel에 여장을 푼 다음, 김응택 교수와 오청달 교수는 친선 골프 하러가고 나머지 일행은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등을 구경했다.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Philadelphia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미국 역사의 출발지라는 무게를 도시 곳곳의 기념적 건물들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ISKS 회원들이 중국 요리집에서 환영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김응택 교수부부(부인은 미국인), 한수웅 박사(의사)부부, 장수철 선생 등이 참가했고 오청달 부회장, 김준호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응택 교수의 환영사 후에,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다. 조금 늦게 신태민 선생이 두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자동차를 몰고 달려 오셨다. 환갑을 넘기신 신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우리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참가하신 것을 보고 미주 쪽 회원들의 열성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독립 기념관 앞에 세워져 있는 George Washington 대통령의 동상 옆에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했던 자리를 동판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Philadelphia에서 Washington D·C의 Georgetown대학까지는 백원광씨가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갔다. 86년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Washigton D·C에서 New York까지 자동차로 달려 갔던 때의 추억이 되살아 나곤 했다.

Leavey center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참가자들의 방은 이미 배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수숙을 마치고 여장을 풀었다.

문정인 교수, 길영환 교수, Steinberg 교수 등이 미리 와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5월25일 밤 7시부터 Leavey center의 조그마한 방에서 Reception 파티가 열렸으며,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 교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일본에서의 파티 분위기처럼 사회자가 있고 환영사, 인사말, 축배, 폐회사 등 형식에 얽매인 것과는 달리 사회자도 식순을 이끌어 가는 형식도 없이 정말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술과 음식도 자기의 취향에 맞추어서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는 것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이었다. 일본에서 간 우리 일행을 일동에게 소개해 줄까도 기대했지만, 그런 형식도 필요없는 분위기였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문정인, 백원광 두 교수의 보고에 상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회의기간 중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데 흥효자 양이 수고해 주었다. 회의가 끝난 27일 저녁 Steinberg 교수 등의 주최로 <又来屋>이라는 Korean Restaurant 에서 식사 겸해서 환담을 나누었으며 ISKS측에서 준비해

간 선물과 Georgetown 대학 측이 마련한 선물의 교환이 있었다. 이 만찬에는 미국 무성의 John. Merrile 부부, Steinberg 교수 부부, World Bank의 이덕수 박사 등과 이번 회의를 위해서 수고해 준 미국 측 사무요원 등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를 바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28일 하루는 Washington D·C를 관광했다. Lincoln 기념관, 각주의 벽돌을 모아 세웠다는 연필모형의 Washigton Monument, Jefferson 기념관, 국회의사당, White House 등등을 둘러 보았다.

29일 Los Angeles에 가서 이틀간 머물렀다. 이창희 박사, John Duncan, UCLA 교수, 차만재 교수 등이 우리 일행을 위해서 30일 밤 又来屋에서 환영 만찬을 열어 주었다.

이번 미국여행에서는 New York에서 Los Angeles 까지 又来屋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처럼, 계속 애용해 온것이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가는 곳마다, 김준호 이사장, 오청달 부회장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소개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인들에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다.



New York의 <牛村>에서 ISKS회원들과 함께
 앞줄 좌로부터 김문욱, 홍효자, 장지윤, 윤어민, 김진모, 현봉학, 백원광
 뒷줄 좌로부터 Roy 송, 오청달, 이계향, 김준호, 양관수.

■ 부회별구상

1. 역사부회

박 창 욱 위원장(중국 연변대학교수)

“국제고려학회”가 출범하여 어언간 두 뚝이 지났다. 1990년 8월 일본 오사카의 국제학술회의와 1991년 7월 소장학자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역사부회에서는 세계 5대주에 있는 저명한 역사학자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소장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선 역사를 중심으로 각국각지의 조선동포들의 과거사에 관한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서로 교환하였다.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각지의 역사학자들은 지난날의 냉전정세하에서 서로 격리된 국면을 박차고 제도, 주의, 신앙 등을 초월하여 서로간의 동포우애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끊을수 없는 동포애로 묶어진 이런 유대의 힘은 앞으로 더욱 공고하게 응집되어 기필코 조선의 남북통일사업을 추진하며 5대주 각지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민족들의 번영과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는다.

국제고려학회 역사부회의 과업은 전세계의 양심있는 조선에 관한 역사학자들이 서로 손잡고 조선 및 5대주 각지에 흩어져 살고있는 조선민족들의 과거사를 참답게 연구하여 서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교류하면서 조선역사과학의 발전을 추진시키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유산과 전통을 총결지어 장차 통일된 조선 역사를 후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힘쓰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사학이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심지어는 같은 연구기구내에서도 서로 부동한 논점과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의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 또 5대주 각지의 부동한 사상과 신앙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에는 《백가가 서로 쟁명》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남의 장점을 따서 자기의 단점을 메운다》라는 명언이 있다. 오직 여러 학자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우수한 조선민족의 역사 유산을 발굴하여 참답게 총결하여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려고 한다면 역사학의 학술 활동에서 서로간의 시각과 인식을 서슴없이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남의 장점을 따서 자기의 단점을 메꾸면서 점차 공통적인 인식으로 비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금후 역사부회의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숙한 소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첫째, 역사학의 소분과(예컨대 상고사, 근현대사 또는 고려사, 이조사 등)와 전

문과제를 둘러싼 학술회의를 (사전에 다음기의 학술회의 범위와 과제를 알려서)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지난날의 조선학회의는 처음이면서도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점 가운데도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규모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다방면의 연구성과들이 제출되었지만 서로간의 심입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잘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 학술회의란 발표된 과제에 대하여 심입된 토론이 있어야 그 과제를 더욱 심도있게 규명할 수 있으며 부동한 논점과 시각도 교류되어야 《남의 장점을 따서 자기의 단점을 미봉》할수있다. 예컨대 조선역사는 크게 나누어 상고사, 중세기사, 근대사, 현대사 그리고 5대주 각지의 조선민족역사가 있으며 더 세밀하게 나누면 각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사 또는 반일 민족독립운동사 등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한데 모아 놓고 학술회의를 진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금후 조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선역사과학의 발전동태의 실정에 근거하여 적당한 규모로 역사 소분과 또는 전문과제(예컨대 조선고대사, 근대사 또는 일제 조선침략사 반일 민족해방운동사 등등)학술회의를 소집하여 그 분과 또는 전체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둘러싸고 서로간의 성과와 견해를 교류하기에 힘쓰므로써 학술회의가 보다 심도 있고 수준이 높아지도록 힘쓰겠다.

둘째,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한다. 학술회의와 활동에서 연로한 학자들 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있는 소장학자들도 많이 흡수함으로써 소장학자들로 하여금 선배학자들의 방조하에 학술수준을 신속히 제고시키며 따라서 그들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학술교류를 위해 소장학자 학술회의를 자주 소집할 생각이다. 그리고 학회의 재정이 허용된다면 소장학자들의 학술진보를 추동하는 장려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로 정기적인 학술회의를 소집할뿐만 아니라 평시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위하여 장차 《역사연구》와 같은 간행물을 내기 위해 힘쓰겠다. 현재 조건에서 우선 고려학회에서 출판하는 《회보》를 이용하여 세계각지에서 진행되는 조선역사학의 동태를 수시로 실어 여러 학자들의 학술연구의 참고로 제공하며 나아가서 금후 진행되는 학술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기초사업으로 삼겠다.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학회에 건의하여 검적으로 사업할수 있는 《편집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세계각지의 역사학자들과 연계하여 각지의 학술동태를 수집, 정리하는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네째, 세계각지의 역사학자들과 수시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술한 《편집원》외의 연락원을 두어 (상술한 편집원이 겸하거나 또는 연락원이 편집을 겸하여도 좋다)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분과위원 그리고 유관 역사학자들의 의견과 요구들을 제때에 이해하여 부회 활동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에 힘쓰겠다.

2. 철학·종교부회

김 철 양 위원장(일본조선대학교 교수)

○경력 1929年生

1953年 (일본)名古屋대학 문학부 철학과 졸업

1960年 同대학 대학원 수료

1961~1991年 현재 조선대학교(교수)(철학·사상사·문화사)

○저서 「인물·근대 조선사상사」 (웅산각 출판)

「조선문화소사」 (대평 출판사)

「조선名士이야기」 (조선청년사)

「조선의 역사와 문화」 (")

「주체철학개요」 (구월서방)

○기서 「김일성저작집」 (共記)미래사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 (共記)미래사

「조선실학사상의 보급」정성철(共記)웅산각출판 등

○사업계획 구상

조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풍부히 하자는 입장에서 자유로운 토론마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통일 철학의 모색

-조선사상사에 관한 연구(종교·민속에 관한 연구도)

-주체사상의 제문제

-과학기술혁명과 환경문제

-각자의 개별연구의 발표마당

■ 연구 활동

1. 아시아 제 2 분회

(1) 東日本 인문사회과학 연구회 :

- 대표 - 大村 益夫 (早稲田大学 교수)
- 총무 - 文 京 洙 (法政大学 비상근강사)

◎ 제 2 회 연구회

보 고 : 兪 和 (東京大学大学院)
「韓国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모색」
일 시 : 1992년 1월 25일(토)
오후 2:00~5:30
장 소 : 東京大学 本郷校舎内「山上회관」

◎ 제 3 회 연구회

보 고 : 大村 益夫
(早稲田大学 教授 · 국제고려학회 아시아 제 2 지역 대표)
「金龍濟와 金鍾漢」
- 1930년대~40년대를 살아온 시인들 -
일 시 : 1992년 3월 7일(토)
오후 3:00~6:00
장 소 : 法政大学 大学院棟 2층 202교실 (JR市ヶ谷駅하차 도보 10분)

◎ 제 4 회 연구회

보 고 : 河 正 慶 (帝京大学 강사)
「사적자치와 재판소제도」
- 韓 · 日 비교에 관한 고찰 -
일 시 : 1992년 5월 9일(토)
오후 3:00~6:00
장 소 : 法政大学 大学院棟 2층 202교실 (JR市ヶ谷駅하차 도보 10분)

(2) 西日本 지역 연구회

- 대표—滝沢 秀樹(甲南大学 교수)
- 총무—高 龍 秀(甲南大学 강사)

◎제 2 회 연구회

보 고 : 辺 英 浩(大阪經濟法科大学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조선사회와 조선주자학의 특질」

—16세기 이율곡을 중심으로 해서—

일 시 : 1991년 12월 21일(토)

오후 14:00~17:00

장 소 : 大阪府 教育회관(다까쓰 가든)

변영호선생은 중국 남송시대에 완성된 주자학이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一定의 변용을 받았다고 지적, ①중국 이상으로 주자학이 사회전체에 침투된 점. ②주자학의 철학 논쟁이 관료들의 정치 투쟁과 결합된 점. ③유교적 평화주의라는 특징을 갖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위에서 이율곡의 향촌 지역 편성론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보고 후 일본에 있어서 유교·봉건사회와의 차이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제 3 회 연구회

보 고 : 宋 連 玉(大阪經濟法科大学 강사)

「종군 위안부 前史」

일 시 : 1992년 2월 22일(토)

오후 14:00~17:00

장 소 : 大阪府 教育회관(다까쓰 가든)

송연옥선생은 보고 중에서,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제 2차 세계대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明治」이후의 일본 公娼제도가 배경으로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함에 따라 조선에 공창제 도입이 행해지고 규모도 확대되어, 일찌기 30년대에는 조선인 여성을 중국으로 연행한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이 前史를 받아서 38년 남경 대학살 무렵 이후, 정부·군에 의한 대규모의 관여·연행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보고를 받고,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 4 회 연구회

보 고 : 金 哲 雄(大阪經濟法科大学 강사)
「재일 조선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일 시 : 1992년 4월 25일(토)

오후 14:00~17:00

장 소 : 大阪府 教育회관(다가쓰 가든)

김철웅선생은

①해방후 재일 조선인의 경제활동이 많은 곤란 속에서 끈기있게 그 활동을 지속해 왔다.

②80년대 이후 공화국과의 合併사업이 전개되어 공화국의 경제에도 기여했다.

③동북 아시아 경제권, 두만강 개발 계획이 현재 검토되고 있지만, 재일 조선인 기업도 이 속에서의 활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후 재일 조선인의 경제활동에 상세한 朝日신문, 福井氏등으로부터 코멘트가 있었고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제 5 회 연구회

보 고 : 박 일(大阪市立大学 조교수)

「한국 N I E S 화의 정치 경제학」

—지배 3 자체제하의 개발과 사회변동—

일 시 : 1992년 6월 20일(토)

오후 14:00~17:00

장 소 : O.I.C(오사카정보 컴퓨터 전문학교)

박일 선생은 92년 7월에 출판된 자서 「한국 N I E S 화의 고뇌—개발과 민주화의 딜레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분석을 보고했다.

한국의 공업화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内因(정부, 국내자본)과 外因(외국자본)과의 변증법적 파악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 N I E S 분석에서 개발된 3자 동맹론(정부, 외자, 현지 자본을 축으로 한 공업화)을 적용, 그 위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3자 동맹은 50년대에는 정체를 초래하고, 60년대 이후의 공업화에서는 3자 동맹을 축으로 한 공업화가 이루어졌으나, 70년대 말에는 지배 3자 관계의 불균형을 상실해, 유신체제의 붕괴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보고후 이어서 참가자로부터 70년대말의 유신체제 붕괴와 3자 동맹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2. 문학부회 연구회

- 대표-김 도 권(大阪經濟法科大学 교수)
- 총무-배 정 열
-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문학의 연구와 소개의 역사

제 1 차 문학 연구회(일본지역)가 1992년 3월 14일(土) 大阪府 教育會館에서 있었다. 현 문학부회 위원장이신 김도권 교수, 그리고 국제 고려학회 관계자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열렸다. 국제 고려학회 부회장이신 오청달 교수의 축사와 김도권 교수의 문학 연구회 발족의 취지 및 인사말로써 시작된 본 연구회는 天理大學 大谷 森繁 교수, 조선대학 金學烈 교수를 비롯하여 국제 고려학회 본부 사무국 임원 등, 조선문학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당일의 강연은 와세다 大學 大村益夫 교수를 맞이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문학의 연구와 소개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2시간에 걸친 강연이 있었다. 大村 교수께서는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연요지》

1. 조선문학의 출판 상황은 1970년대와 비교해서 1990년대의 현 시점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일본국 내에서 조선학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는 조선학 관계 학회 회원수로부터 추정해서 약 430명 정도이지만 조선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열명 안 밖이다.
2. 1904년에서 1945년 8월 까지의 일본어로 발표된 조선문학 관계의 문헌 목록을 1984년에 「조선문학 관계 일본어 문헌 목록」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당시 출판물의 내용을 보면 일본어로 된 조선문학의 연구, 소개, 번역, 창작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요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1945년 부터 50년대 까지의 특색은 글쓴이가 재일 조선인 뿐이었다는 점과 사회주의 북조선의 문학만이 소개되었으며 한국문학은 거의 무시되었다.
4. 한국문학이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은 1965년 이후이다. 한일 조약 체결이 있었던 1965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일본문학계 안에서 한국과 북조선의 위치가 역전된다.
5.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문학의 출판물이 급증하게 된다. 특히 김지하의 작품 소개가 붐을 이루었다. 몇몇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번역물이 등장하나, 번역작업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6. 80년대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 붐을 맞이 했다. 그리고 한글 강좌도 시작되었다. 종래의 조선 연구자가 구도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80년대는 가볍고, 즐겁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민중 레벨화 되었다. 그렇지만 문학 관계의 출판물 수는 70년대에 비해 반감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조선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되어 버렸다.

7. 일본인 연구자 8명에 의한 조선문학의 연구, 번역물 소개.

8. 별표(別表). 70년대 이후의 출판물(단행본)의 목록
(7과 8에 관해서는 지면의 제약에 의해 생략함)

※강연 및 발표문은 일본어이었으며, 기록자에 의한 번역 및 정리 임을 추기함)

3. 과학기술부회의 연구회

· 대표-장 년 석 (大阪電通大学 교수)

· 총무-송 구

본회에서는 연구회 뿐만 아니고, 제4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에 관한 진행과정의 알림과 본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회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보다 알찬 부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올해들어 2회에 걸친 “연구회를 통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3회 연구회

보 고 : 宋 龜(오사카 정보컴퓨터 전문학교)

[조선수학사에 관해서]

일 시 : 1992년 2월 29(토)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장 소 : 大阪府 教育회관(다까쓰 가든)

3 F 회의실[기쿠노마]

◎제4회 연구회

보 고 : 玄 丞 傑(京都大学)

[생체의료재료의 개발현상과 장래]

일 시 : 1992년 6월 13일(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 소 : 아피오大阪(오사카시립노동회관)

2층 204호

大阪市中央区森ノ宮中央 1-17-5

TEL : 06-941-6332

(JR, 地下鉄 森ノ宮駅下車徒歩23分 日生球場 東側)

제 3 회 연구회에서는 본회의 송구 총무가 「조선수학사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조선수학의 사적의의와 존재성에 관해 발표했으며, 제 4 회에서는, 최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医用高分子에 관해 흥미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소식으로는 4 월24일~28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제 4 회 세계 바이오 마테리얼 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참가국 28개국, 발표자 701명, 참가자 1,061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력이 신장된 나라로부터의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38명이 발표를 하였는데 나라별로 보면, 일본 98명, 중국 25명, 한국 7명, 인도 7명, 대만 1명 등이었다.

회 원 동 정

회원의 연구활동(저서, 논문, 학회활동)

1. 大村益夫(早稲田大学 교수, 아시아 제2지역 본부 대표)

金龍濟는 1930년에 있어서 일본의 지배 계급과 식민지 지배에 가장 용맹과감하게 저항했다. 프로문학 시인이며, 나중에는 전향해서 극단적인 친일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양면에 있어서 김용제는 일본, 일본문학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우리들 뇌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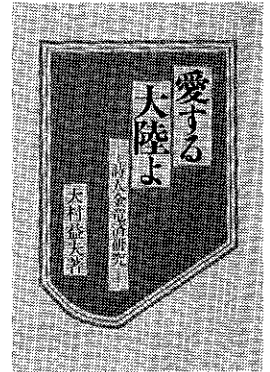
김용제가 남긴 한국과 일본에서의 프로문학의 화려한 업적은 그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며, 비록 친일문학으로 전향했다고 해서 이전의 그의 업적이 부정된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인 이광수 또한 전면 부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자를 귀결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김용제의 초기 문학 활동이 프로문학이었던 점,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발표되었던 점, 친일 문학자로서 비교적 화려한 활동을 했던 점 등 어느 하나를 들더라도 한국에서 환영받을 조건은 없다. 한국 문학사상 김용제는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가끔씩 언급되더라도 대표적 친일 문학자의 한 사람으로서이다.

한국 문학사상 「일제의 암흑기」에 대표적인 민족적 시인이라면 운동주를 든다. 문학사에서 김용제의 자리는 없지만 만약 설정한다면 운동주의 대극(對極)인 좌표에 놓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대륙이여」 머리말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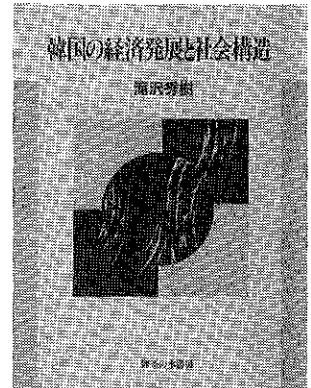
2. 滝沢秀樹(甲南大学 経済学部 교수, 경제부회 위원장)

최근 나의 한국 연구는 의식적으로 미시적인 것에 주저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내재화」하려고 해 왔다.

“동 아시아 경제권”, “서 태평양 시대”가 논의되는 가운데 나는 도리어 의도적으로 한국 내의 지역 단위의 취업자 동향이나 논쟁의 개별 논문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반대로 “세계사적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파악할 때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해 왔고, 본 서의 내용을 실제로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서는 나의 「전력투구」의 소산이고, 그런 것의 자부감을 책으로써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머리말 중에서



3. Hawaii 大学の 한국학회 참가

Hawaii 大学の Center For Korean Studies 주최로 개최되는 한국학회에 본 학회 오청달 부회장, 송남선 사무국장, 윤정욱 사회부회 총무 등 3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학회는 7월 28일(화)부터 8월 1일(토)까지 5일간 열리게 된다.

4. 미주지역의 회원

본 학회 미주지역 대표인 현봉학 박사가 미국병리학회(ASCP,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Pathologist)가 매년 모범적인 회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1992. Distinguished Service Award honoring Israel Davidsohn>을 수상하게 되었다.

금년 미국병리학회는, Nevada주의 Las Vegas에서 10월 9~16일까지 정기학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기간 중인 10월 11일(토) 개회식장에서 현박사에게 시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현박사가 수상하는 상은, ASCP의 회원 중에서 학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경력이 있는 모범적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ASCP의 회원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현박사는 병리학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활동도 열성적으로 해 오신 분이다. 1977~78까지 <재미한인의사협회>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 협회의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북미한인병리학회> 회장도 맡고 계신다.

■ 사무국 활동일지

(1992. 1 ~ 1992. 7)

1992년	내 용
1월 11일	본학회의 정치법률 부회와 Georgetown 대학과의 공동주최 학술회의의 계획서 초안 접수
1월 13일	사무국 회의, 92년도 예산 관련
1월 14일	Georgetown 대학과의 공동주최 Conference의 준비과정에 대한 FAX를 문정인 교수로부터 접수
1월 25일	제 2 회 東日本인문·사회과학 연구회
2월 18일	Georgetown 대학의 David.I.Steniberg교수에게 Conference 개최에 대한 본 학회의 요청사항을 FAX로 보냄
2월 22일	제 3 회 西日本연구회
2월 29일	제 3 회 과학기술부회 연구회
3월 7일	제 3 회 東日本인문·사회과학 연구회
3월 9일	최응구회장 來日
3월 14일	문학부회 제 1 회 연구회 곳 : 다까쯔 가든 보고테마 : 「일본에 있어서 조선문학의 연구·소개의 역사」 보고자 : 大村 益夫(早稲田大学 교수)
3월 17일	Georgetown 대학과의 Conference에 참가할 오청달 부회장, 양관수 사무차장, 김준호 OIC이사장, 홍효자씨에게 초청장을 보내음
3월 25일	한국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원 본학회 방문을 희망하는 FAX 접수
3월 28일	한국의 <이중언어학회>의 김민수 고문(고려대 명예교수), 심재기 회장(서울대 교수)정광 부회장(고려대 교수)이, 본학회와 국제 학술회의 공동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來日

3월 29일	한국의 <이중언어학회>와 본학회가 1993년 1월 중으로 日本 大阪 또는 東京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체결
4월 17일 4월 25일 4월 28일	제 4 회 東日本인문·사회과학 연구회 제 4 회 西日本 연구회 한국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원, 김봉진, 정규섭, 허문영, 전현준, 유호열 등 5명이 본학회 방문하여 오칭달 부회장, 송남선 사무국장, 양관수 사무차장과 함께 앞으로 본학회와의 학술교류 방안에 대해서 협의
5월 1일 5월 9일 5월 15일 5월 16일	北京 제 2, 3 차 운영위원회에 관한 통지서를 각 운영위원에게 발송 제 4 회 東日本인문·사회과학 연구회 ·北京의 제 2, 3 차 운영위원 회의에 관한 통지서를 사무국 성원과 각부회 총무에게 발송. ·北京에서 8월 20~22일까지 열리는 제 4 차 조선학 국제 학술 토론회와 본학회 제 2 차 총회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 과학·기술부회의 회의
6월 2일 6월 13일 6월 17일 6월 20일 6월 22일 6월 28일	ISKS 美州지역의 회원인 이창희 박사(의사, L·A거주)부부 来日, 환영회 제 4 회 과학·기술부회 연구회 한국 여성개발원의 김동연, 강정숙씨가 来日(해외동포의 가정 교육)을 테마로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하기 위한 협력여부를 본학회와 협의 제 5 회 西日本지역 연구회 사무국 국차장회의 北京에서 열릴 본 학회 제 2 차 총회의 준비, 식순 등을 협의. 본학회의 제 2 차 총회 및 제 2, 3 차 운영회의 준비를 위한 국차장회의
7월 4일	본학회의 제 2 차 총회 준비를 위한 사무국 국차장회의

알림

1. 제 4 회 조선학 국제 학술 토론회

오는 8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3일간 북경에서 열린다. 회의 참가자의 등록은 8월 19일(수) 五州호텔에서 시작되며 본 회의장은 북경 국제회의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2. 제 2 차 ISKS 총회

- 일 시 : 1992. 8. 22.
- 장 소 : 중국 북경, 국제회의센터
- 식 순
 - 사 회 : 양오진(사무차장)
 - 개 회 사 : 최응구(회 장)
 - 사업보고 : 송남선(사무국장)
 - 재정보고 : 김성수(사무차장)
 - 회칙개정 : 양관수(사무차장)
 - 역원개선 : 오청달(부회장)
 - 폐 회 사 : 미하일 박(부회장)

3. 제 2, 3 차 운영 위원회

오는 21일 오후 북경 五州호텔에서 제 2 차 운영 위원회가 열리며 23일 오전에는 제 3 차 운영 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 될 것이다. 이번 운영 위원회에서는 회칙 개정 및 회장단의 개선과 앞으로의 활동과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

國際高麗学会

発行人 宋 南 先
編集人 梁 官 洙
発行所 国際高麗学会本部事務局
発行日 1992年7月31日

日本国大阪府八尾市染音寺6丁目10番地

大阪経済法科大学内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 Law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s
6-10 Gakuonji, Yao, Osaka, 581 Japan
TEL 0729 (41) 8211 EX. 432, 434
FAX 0729 (41) 4665